

## 社會의 病的 現象 (十)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 東亞의 歐洲化되는 理由 (續)

勿論 軍艦만 製造하기 爲하여 日本 國民이 五十年 間을 努力하여왔다 하면 事實의 一面만을 觀하는 偏見이라 하겠지마는, 何如間 現代 東亞民族의 모든 建設的 活動이 그 大部分은 自禦라는 動機에 存함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이와 갓치 外界 事情의 必要를 因하여 歐洲民族의 社會生活을 倣效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매, 國政을 執하는 者는 一般 國民에게 歐洲文化를 獎勵하고 國內에서는 歐洲의 制度를 標準으로 한 敎育을 施行하여 여러분과 갓흔 聰明子弟를 國外에까지 送하여 實地에 研究케 하며, 또 每年에 各 社團에서 代表團을 派遣하여 될 수 잇는 대로 各 方面의 狀態를 視察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中에서 누구던지 此思潮에 反抗하여 順應코자 하지 아니하면, 糊口의 策이 無하게 되야 畢竟은 우리 社會生活에 無用한 寄生蟲이 되고 말 것입니다.

### 事物 理解에 二種 方法이 有함

그런즉 이러한 時代에 우리가 歐洲文化를 崇拜하게됨도 決코 怪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何物何事든지 崇拜하라면 그 目的物을 理解함이 前提條件이 됩니다. 事物을 理解함에는 우리가 아는 것 갓치 二個 條件이 잇습니다. 그 事物의 如何하다는 外發的 印象으로 우리의 理性이 黑白을 分辨하는 것과 또 此로 因하여 우리의 內發的 反應으로 그 事物의 性質과 우리 心靈의 原性과의 一定한 內的 關係가 相應相和하여 一定한 感情이 生함으로 崇拜의 始初인 反應的 經驗이 되는 것 그것 입니다. 一目的物에 對하여 單純한 認識的 理解로 된 智識과 感應的 經驗으로 된 智識의 差異가 有함은 心理學 上에 一般히 認定된 心理的 事實입니다. 一例를 舉하면 우리가 本國에서 外國語를 學習할 새에 歐洲人이 著作한 書類를 讀하면 文法의 解釋과 字典에 依

하야 其書類 中에 存하는 思想의 骨格은 能히 理解하나 그 思想의 感情의 基礎는 조금도 經驗치 못합니다. 字々文々을 다 解釋하야도 그 文과 文 사이 에 있는 肉眼으로 經驗치 못할 著者의 心靈은 理解치 못합니다. 如斯한 境遇 에는 外國語가 不足하다는 理由로 自責을 免하기도 하려니와, 우리가 歐洲에 幾十年을 在하야도 事物을 經驗할 새마다 本國서 不足한 語學으로 讀書하든 것과 갓흔 境遇가 적지 아니합니다. 假令 우리가 聖經을 讀하고 教堂에 牧師의 說教를 聞할 새에 耶蘇라 하는 聖人의 博愛라든지 永生이라는 意義를 能히 理解도 하고 可否와 理解를 能히 批評도 하지만은, 이 사람 生覺 갓해서는 그 博愛라든지 永生의 眞正한 意義는 自己가 實際로 感應的 經驗을 하지 아니하고 單純한 認識만으로는 到底히 理解치 못할 줄 압니다. 此博愛의 眞意를 實際로 經驗치 못한 故로 此에 從屬되는 原則 卽 敵을 愛하라 하는 法則에 對하야서도 우리 東亞人의 大部分은 鼻笑합니다. 그런 故로 耶蘇의 教訓의 眞義를 覺得한 人士가 教堂에서 熱誠으로 說道함을 보고 狂者と 갓치 역닙니다. 우리가 歐洲에서 美術館에 入하야 美術品을 觀覽할 새나 音樂會에서 音樂을 聞할 새나, 或 自己 書齋에 靜坐하야 『외테[괴테]』나 『실러』의 詩集을 讀할 새에 그 五覺으로 得한 印象을 因하야 能히 美醜를 分辨하나, 그러나 歐洲人이 經驗하는 것과는 大相不同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 大概는 如斯한 表面的 印象으로 得한 經驗으로 그 眞相까지를 撤透한 줄노 自信하는 傾向이 多한 것 갓습니다. 健康한 情神을 有하는 正眞한 人은 如斯한 缺點을 自覺하는데, 엇더한 사람은 理解치 못한 것을 理解한 것갓치 無意識的 或 有意識的으로 自己를 欺瞞하는 傾向이 우리 時代에 업지 아니합니다. 老子는 『知不知上, 不知知病, 夫維病病, 是以不病, 聖人不病, 以其病病, 是以不病』이라는 眞理의 才談을 하얏습니다. 우리가 만일 歐洲文化를 眞正히 理解하고 또 感應하야 崇拜하며 服從한다 하면 上이라 하겠스나, 만일 그러치 아니하고 理解한 것처럼 信하면 病이라 하겡습니다. 그러면 如斯한 病을 病으로 認定함이 健全한 精神이라 하겡습니다. 우리가 歐洲文化를 如何한 態度로 模倣하는가함에 對하야 一適습한 實例를 舉하면(이것의 事實 與否는 이 사람도 確定치 못하나), 臺灣政府에서 一旅館을 建築코자하야 數十餘人을 瑞西로 派遣 視察케한 結果 一大 最新式建 築物을 落成한 그것인데, 此當時에 外國人이 그 建築物을 察見한즉 엇지도 瑞西式이든지 그 琉璃窓까지 瑞西式의 兩重이라 來賓들은 그 酷暑를 耐치 못하얏다 합니다. 或 外界의 暑氣를 防禦코자하야 이와 갓치 倣倣하얏난지는 아지 못하거니와, 熱帶地方의 窓門 制度를 瑞西와 갓흔 寒帶地方의 그것과 大同小異하게 製造한 것은 實로 놀 넬만한 일입니다. 如斯한 例를 觀하면 우리가 歐洲文化를 輸入할 새에 批評

的 態度가 無한 同時에 우리의 倣倣는 純全한 倣倣에 不過하여, 맞치 蛇類가 鷄卵을 呑食하는 것갓치 其食物의 眞味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事實이라 하겠습니다. 此例를 一般化하기는 勿論 不可하겠지만 如斯한 態度가 적어도 一般 傾向임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歐洲文化를 外界의 事情에 依하여 採用치 아니치 못할 것은 理解할 바이어니와, 一步를 進하여 崇拜까지함은 너무도 理解키 困難한 事이 안임니가? 만일 그 眞義를 理解치 못하고 崇拜함이라면 이는 空虛이갓으며, 만일 그 崇拜가 虛飾이 아니면 自己自瞞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理由로 이 사람은 自想하기를 우리 東亞가 歐洲文化를 採用하게됨은 全혀 自禦하기 爲하여 된 것인데, 漸次 自暗示的으로 崇拜하게 되야 그 結果는 自禦가 아니라 (勿論 文化上으로 觀察하면) 도리혀 歐洲에게 物質的으로 征服을 當하고 쏘 그 內容 生活인 精神的으로 征服을 當하게 되얏다함니다. 歐洲의 文化가 우리 東亞를 征服하는 現象은 實로 우리가 每日 目睹하는 바임니다. 幾百萬이나 되는 우리 新式學校에서 每日 教師가 敎訓하는 現象을 우리는 歐洲文化의 征服現象이라 하며, 甚至於 新舊思想이 衝突하여 우리 父母와 年老한 同胞의 憂慮를 惹起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는 歐洲文化의 征服을 當하는 現象으로 解釋함니다. 德國이 大砲와 飛行機로 世界를 征服하여 自己의 文化를 宣布하고자 함보다 如斯한 自願兵으로 自征服함이 오히려 完全한 方式입니다. 그러면 將來의 如何는 此後 漸次 싱각하려니와 何如間 우리 東亞가 目下에 歐洲의 征服 下에 在함은 確實한 事實이라 認定치 아니치 못하겠습니다.